

사회

중학교 '짱'이 초등생 등에 22만원 상납받아

광주시 학교폭력 갈취 사슬

피해학생은 후배들에 돈 모아 건네

광주시 광산구 일대 중학교 1학년 '짱'으로 불리는 학생이 함께 어울려 다니던 인근 학교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들이 다시 후배들에게 금품을 빼앗아 상납하는 '학교폭력 사슬'이 드러났다.

특히 피해 초등생 학부모들은 금품을 최종적으로 상납받은 중학생이 인근의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서도 금품을 상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광주시 광산구 중학교 2곳과 초등학교 1곳에 따르면 모 중학교 1학년 A(13)군이 최근 평소 어울려 다니던 인근 중학교 친구들과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22만원을 상납받았다. A군은 지난달 25일께 "자전거를 사야 한다. 설 병철에 받은 세뱃돈을 모아 오라"며 인근 중학교 B(13)군 등 2명과 인근 초등학교 6학년 C(12)군에게 40만원을 모아 올 것을 요구했다.

A군의 지시를 받은 C군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마련하기 힘들자 동급생 6명에게 A군의 이야기를 하며 상납할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군 등은 상납할 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자 같은 학교 후배(5학년) 9명에게 A군의 이야기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지시했고, 최근 후배들 중 일부가 마련한 돈과 자신들이 마련한 돈을 1차적으로 A군에게 전달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인근 중학교 B군 등 2명도 초등생들에게 돈을 빨리 모아 A군에게 전달할 것을 강압하고, 자신들도 일부를 모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상납할 돈을 전부 마련하지 못한 C군이 같은 학교 후배 D(11)군에게 '독촉'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D군의 부모가 알아차리고 학교에 알려면서 드러났다.

A군은 광주시 광산구 일대 중학교 1학년 '짱'으로 불리는 학생으로 지난 해 4월과 10월에도 동급생들에게 금품을 갈취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각각 특별교육 5일과 등교정지 5일

및 사회봉사 5일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A군의 학교는 지난 10일 오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A군을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에 '학교장 통고' 조치했다. 또 B군 등의 학교와 C군 등의 학교도 14일 각각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처벌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 학생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1년 넘게 A군에게 금품을 상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군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학교 이외

에도 다른 학교에서도 금품을 갈취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A군이 다니는 중학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학교측은 "A군의 진술서를 토대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고, 더 이상의 가해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달 1일 개학하면 등교금지, 전학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어디 일할 곳 없나

본격적인 취업시즌을 앞두고 13일 조선대 중앙도서관에서 학생들이 터치 스크린으로 자신들이 일할 만한 곳을 찾아보고 있다. /김진기기자 jeans@kwangju.co.kr

후배 돈 뺏고 휴대전화 갈취하고...

서부경찰 중·고 '일진' 입건 남부경찰 10대 형제 둘 조사

광주서부경찰은 13일 패거리로 구성해 또래 학생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앗은 김모(16·고1)군과 정모(15·소년원 수감중)군 등 중·고생 7명을 갈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 등은 지난달 11일 오후 4시께

북구 운암동 모 PC방에서 이모(15·중3)군을 협박해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2차례에 걸쳐 8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빼앗은 휴대전화의 판매금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올려 계속 대금을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1회당 10~35만원씩 32차례에 걸쳐 780만원을 가로챘

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광주지역 중·고교에서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이들은 동네 오락실과 PC방을 근거지로 하며 마주치는 인근 학생들에게 "현금과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학기간 가출한 이들은 모텔을 전전하면서 갈취·계좌 만들기·판매 등으로 조를 나눠 휴대전화 판매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벌어들인 돈 대부분

을 유혹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 남부경찰은 또 이날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해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앗은 김모(15)군 등 형제 2명을 갈취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형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광주 남구 모 중학교 정문에서 귀가하는 채모(15)군 등 3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을, 동생은 채군 등을 상대로 오토바이 구입자금이 필요하며 현금, 교통카드, 50만원 상당의 점퍼 등 1년여 동안 29차례에 걸쳐 81만원을 각각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경찰 학교폭력 전수조사 분석

"상황 심각하면 즉각 수사"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광주·전남 초·중·고교생에 대한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넘겨받아 본격적인 피해사례 분석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특히 먼저 회수된 설문지에서 상당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냈고 이 중 일부는 피해 사실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경찰은 필요한 경우 즉각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난달 전국 초중고생에게 보낸 학교폭력 전수조사 설문지에 대한 학생들의 회신 기한이 12일자로 마무리돼 14일 각 경찰서에서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경찰청이 넘겨받아 분석한 설문지 약 12만 건 중 피해사례가 조금이라도 기재된 분량은 전국에서 4339건이며, 이 중 광주가

170여 건, 전남이 190여 건이다.

경찰이 예의주시하는 문항은 학교폭력 피해나 목격 경험에 대해 주관식으로 기술하는 6번 문항이다. 경찰은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 피해 사실, 시간,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사례이면 동시에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개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화정 주공 일부 세대 수돗물 만나와

한파탓... 주민 큰 불편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건설을 위해 현재 철거중인 서구 화정 주공아파트 내 일부 세대의 수도 공급이 안 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화정 주공아파트 주민과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추운 날씨 탓에 수도관 동파사고가 발생, 이달 초부터 물이 약하게 나오기 시작해 12일 오전에는 10여가구에 수도 공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들은 인근 목욕탕에서 씻고 출근해야 했으며 "다음달 1일 개학하면 등교금지, 전학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900세대 중 80~100세대 정도가 이 주기 간 내 거주지를 찾지 못했거나 청산 절차 진행, 철거 반대 등을 이유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주민 최모(65)씨는 "이를 전부터 흉탄물이 섞여 나오더니 이제는 물이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며 "씻지도 못하고 밥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철거중이라 케이블TV선이 끊어지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조합 측은 "수도관이 얼어 관리사무소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조합 측은 4월까지 철거를 마치고 본격적인 재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검사직대 공소제기 잘못"

법원 합의부 재판에 검찰이 검사직무대리 명의로 기소했다가 개정 법률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3일 "음주운전 3건 아웃 대상이거나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62)씨 등 4명의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 합의부 재판 음주운전자 4명
검사직무대리 명의로 기소
개정 법률 공소 기각 '해프닝'

0.2% 이상의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62)씨 등 4명의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합의부 심판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검사직무대리가 공소를 제기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

무를 대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은 법원 조직법에 따라 합의부 심판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9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3건 아웃 대상자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운전자는 법원 합의부 심판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직무대리가 공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

다는 것이 법원의 판

단이다.
이들에 대한 양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주지법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시행된 후인 지난해 12월21일과 22일 검사직무대리를 통해 양씨 등을 기소했다. 광주지법은 각각 4건을 검사에게 배당해 다시 기소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명호 전 교수 복직소송 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대법원은 13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관군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원이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친구를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5개월보다 높은 징계 수위다.

징계위는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

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부장판사는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까새끼 뽕뽕' 등 대법원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특히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글을 올렸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연수원 29기) 판사를 대법원이 지난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데 대해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며,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논란을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나원침 (8501) 김장두



세 자녀 폭행 숨지게 한

사이비 목사 부부 구속

병에 걸린 자녀들을 치료한다며 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사이비 목사 부부(광주일보 2월 13일 6면)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박모(43), 조모(여·34)씨 부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최근 독감을 앓은 큰딸(10)과 8살, 5살인 아들로부터 잡귀를 몰아낸다고 하며, 파리채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망한 자녀를 부검해 폭행사실을 밝혀냈다.

박씨 부부는 금식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지난 11일 오전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이들 부부의 교회에서 박씨의 세 자녀가 나란히 숨진 채 고모부에 의해 발견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소개팅 여성 돈 상습 절도 10대 딸미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의 지갑에 상습적으로 손을 댄 10대 대학생이 술에 취한 척 연가하며 범행을 목격한 여성의 기지로 경찰서행.

13일 광주서부경찰에 절도 혐의로 입건된 대학생 이모(19)군은 지난 10일 새벽 4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술집에서 대학생 정모(19)양의 지갑에 든 현금 10만원을 훔쳤다는 것.

최근 소개팅으로 정양을 만난 이군은 평소 자신을 만날 때마다 돈이 사라지는 점을 수상히 여긴 정양이 이날 술에 취해 잠이 든 척하자 이를 모르고 또다시 지갑에 손을 댔다가 딸미.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3월2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과·합격]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사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아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품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